#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2019년 4월 18일 제 39권 20호별지


# 성삼일(聖三日, Triduum Paschalis) 전례

## 파스카 성삼일

파스카 삼일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성야>이다. 교회는 해마다 이 기간에 주님의 파스카 신비, 곧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신비들을 거행한다. 그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식이다. 원래 파스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린양을 잡아, 피는 대문에 뿌리고 고기는 먹었다. 허리에는 띠를 둘렀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양고기와 함께 먹었다. 그날 밤 어린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에서는 맏아들이 죽는 참변이 일어났다.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구원으로 건너갔기에 '건너감'을 뜻하는 파스카(Pascha)를 축제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후 파스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축제로 자리 잡게 된다.

구약의 파스카는 신약의 파스카를 위한 준비였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의 어린양이 되시어 희생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다. 이것이 완성된 신약의 파스카다. 이 파스카 삼일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한 해의 전례주년에서 가장 거룩하고 뜻 깊은 기간이다. 이 기간을 일컬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분의 성삼일(聖三日)'이라고도 한다.

## 주님 만찬 성목요일 (4월18일)

**☞ 주님 만찬 저녁미사 : 오후 8시**

'파스카 성삼일'의 첫날이다. 스승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모습 속에 당신 자신을 영원히 남기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세상 마칠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라고 명하신다. 성체성사는 천국을 향한 여정에 있는 지상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영적 양식이며, 이 예식을 거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 자신을 봉헌하라는 사제직분을 세우셨음을 의미한다. 강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모범을 따라 세족례를 거행하며, 미사 후에는 수난감실로 성체를 옮긴다. 신자들은 밤을 새워 그곳에서 조배 드리며 기도한다.

- ▶ 시작성가 : 전례성가 154
- ▶ 대영광송
- ▶ 제 1독서 : 탈출기 12,1-8,11-14
- ▶ 화 답 송 : 성가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마시는 것이네")
-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11,23-26
- ▶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복음 : 요한 13,1-15
- ▶ 강론 / 발씻김 예식 / 보편지향기도
- ▶ 봉헌 : 270
  - 사순애긍 봉투 봉헌 -
- ▶ 성체 성가 : 전례성가 289, 280
- ▶ 성체를 옮겨 모심
- ▶ 수난 감실 성체조배 : 조배시간표 참조(뒷면)

## 주님 수난 성금요일 (4월19일)

**☞ 십자가의 길 기도 : 오후 3시**
**☞ 주님 수난 예식 : 오후 8시**

교회는 오늘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심을 기념하고 묵상한다. 오랜 전통에 따라 오늘은 성찬 전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만 거행한다. 본래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말씀 전례만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십자가 경배와 영성체 예식이 도입되어 오늘의 전례로 고정되었다. 전례 개혁 전에는 집전 사제만 성체를 모셨으나, 1955년 전례 개혁 이후로는 모든 교우에게 영성체가 허용되었다. 오늘은 금육과 금식을 준수해야 한다. <뒷면에 계속>

## 성토요일 주님 부활 성야 (4월 3일)

주님 부활 성야 예식 : 토요일 오후 8시

이 밤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룩한 밤'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마지막 밤을 기다렸던 것과 같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승리자로 오실 것이다. 이 밤에 우리는 손에 등불을 밝혀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깨어 있다가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오늘 성야의 전례는 크게 빛의 예식, 말씀 전례, 세례서약 갱신, 그리고 성찬 전례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빛의 예식을 거행하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를 따라 행렬하며, 장엄한 부활찬송을 노래한다.

제2부 말씀 전례에서는 주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당신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신뢰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아들인다. 제3부에서는 세례서약 갱신을 거행한다. 제4부 성찬 전례에서 세례서약 갱신으로 새로워진 우리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된 거룩한 식탁에 참석한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 제1부 :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 ▶ 불 축복과 부활초 점화
- ▶ 행렬
- ▶ 부활찬송

### ◈ 제2부 말씀의 전례

- ▶ 제1독서 : 창세기 1,1-2,2<또는 1,1.26-31ㄱ>
- ▶ 제3독서 : 탈출기 14,15-15,1ㄱ
- ▶ 제5독서 : 이사야 서 55,1-11
- ▶ 제7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36,16-17ㄱ.18-28
- ▶ 서 간 : 로마서 6,3-11
- ▶ 화 답 송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 복음 : 마르코 16,1-7
- ▶ 강론

### ◈ 제3부 세례 서약 갱신식

- ▶ 성수 축성
- ▶ 세례서약 갱신
- ▶ 보편지향기도

### ◈ 제4부 성찬의 전례

- ▶ 성체 특송 : 성가대
  "부활을 만나리라"

† 알렐루야 ♬ / 부활을 축하드립니다.